

<2015.10.13.>

奎北日報

2015년 10월 13일 화요일
007면 자치시대

고창 성송면 주민 운곡 랍사르습지 탐방

고창군이 생물권보전지역 제대로 알기사업의 일환으로 주민들의 운곡랍사르습지 탐방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성송면 새마을 지도자, 부녀회 등 35명이 12일 운곡 랍사르습지를 탐방했다.

고창생물권보전지역에 대한 주민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된 이번 탐방은 숲 해설사의 친절한 안내와 설명으로 참여자들의 천혜의 보물인 랍사르습지의 조성과정과 동식물들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기회가 됐다. 고창=김성규 기자

전민일보

2015년 10월 13일 화요일
008면 지역

성송면 새마을 운곡람사르 습지탐방

고창 고창군(군수 박우정)에서는 유네스코 고창 생물권보전지역에 대해 지속 가능한 발전과 주민부터 생물권보전지역 제대로 알기사업의 일환으로 운곡람사르습지 탐방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고창 성송면 지역구심체인 새마을 지도자?부녀회 등 35명은 12일 운곡 람사르습지 탐방을 실시했다.

고창생물권보전지역에 대한 주민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된 이번 탐방은 숲 해설사의 친절한 안내와 설명으로 참여자들의 천혜의 보물인 람사르습지의 조성과정과 동식물들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진행됐다.

정재원 새마을지도자 회장은 “생물권 보전지역의 유지와 발전은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활동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행정과 군민이 유기적인 협력구축을 통한 청정 고창 생물권보전지역 실현에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고창=임동갑기자



고창 성송면 지역구심체인 새마을 지도자·부녀회 등이 12일 운곡 람사르습지 탐방을 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고창 생물권보전지역 '바로알기' 적극

성송면 새마을지도자·부녀회 35명 운곡람사르 습지 방문

고창군이 유네스코 고창 생물권보전지역에 대해 지속가능한 발전과 주민부터 생물권보전지역 제대로 알기사업의 일환으로 운곡람사르습지 탐방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고창 성송면 지역구심체인 새마을 지도자·부녀회 등 35명은 12일 운곡 람사르습지 탐방을 실시했다.

고창생물권보전지역에 대한 주민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된 이번 탐방은 숲 해설사의 친절한 안내와 설명으로 참여자들의 천혜의 보물인 람사르습지의 조성과정과 동식물들에 대

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진행됐다.

이를 통해 행정구역 전체가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고창군에 대한 주민 이해도를 높이고 자긍심을 높이는 시간이 됐다.

정재원 새마을지도자 회장은 "생물권 보전지역의 유지와 발전은 지역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활동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행정과 군민이 유기적인 협력구축을 통한 청정 고창 생물권보전지역 실현에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신익희기자/syhee5311@hanmail.net

전라매일

2015년 10월 13일 화요일
009면 지역

고창군, 운곡람사르습지

탐방 적극 추진

고창군은 유네스코 고창 생물권보전지역에 대해 지속가능한 발전과 주민부터 생물권보전지역 제대로 알기사업의 일환으로 운곡람사르습지 탐방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고창군 성송면 지역구심체인 새마을 지도자·부녀회 등 35명은 지난 12일 운곡 람사르습지 탐방을 실시했다.

고창생물권보전지역에 대한 주민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된 이번 탐방은 숲 해설사의 친절한 안내와 설명으로 참여자들의 천혜의 보물인 람사르습지의 조성과정과 동식물들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진행됐다.

이를 통해 행정구역 전체가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고창군에 대한 주민 이해도를 높이고 자긍심을 높이는 시간이 됐다.

정재원 새마을지도자 회장은 “생물권 보전지역의 유지와 발전은 지역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활동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행정과 군민이 유기적인 협력구축을 통한 청정 고창 생물권보전지역 실현에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정관진 기자



고창 성송면 지역구심체인 새마을 지도자·부녀회 등 35명은 12일 운곡 람사르습지 탐방을 실시했다.

생물권보전지역 ‘고창’ 제대로 알기

성송면 새마을지도자·부녀회, 운곡 람사르습지 탐방 ‘호응’

고창군은 유네스코 고창 생물권보전지역에 대해 지속가능한 발전과 주민부터 생물권보전지역 제대로 알기사업의 일환으로 운곡람사르습지 탐방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고창 성송면 지역구심체인 새마을 지도자·부녀회 등 35명은 12일 운곡 람사르습지 탐방을 실시했다.

고창생물권보전지역에 대한 주민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된 이번 탐방

은 숲 해설사의 친절한 안내와 설명으로 참여자들의 천혜의 보물인 람사르습지의 조성과정과 동식물들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진행됐다.

정재원 회장은 “행정과 군민이 유기적인 협력구축을 통한 청정 고창 생물권보전지역 실현에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종성 기자

kjs56730@daum.net

고창 성송면 새마을지도자·부녀회 운곡람사르 습지탐방



[전북=동양뉴스통신] 양도윤 기자 = 전북 고창군은 유네스코 고창 생물권보전지역에 대해 지속가능한 발전과 주민부터 생물권보전지역 제대로 알기사업의 일환으로 운곡람사르습지 탐방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고창 성송면 지역구심체인 새마을 지도자·부녀회 등 35명은 12일 운곡 람사르습지 탐방을 실시했다.

고창생물권보전지역에 대한 주민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된 이번 탐방은 숲 해설사의 친절한 안내와 설명으로 참여자들의 천혜의 보물인 람사르습지의 조성과정과 동식물들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진행됐다.

이를 통해 행정구역 전체가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고창군에 대한 주민 이해도를 높이고 자긍심을 높이는 시간이 됐다.

정재원 새마을지도자 회장은 “생물권 보전지역의 유지와 발전은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활동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행정과 군민이 유기적인 협력구축을 통한 청정 고창 생물권보전지역 실현에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양도윤 kangjh4932@naver.com

<저작권자 © 동양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